

남 먼저 배려하는 '삶'의 행복

'티베트의 아이들'
정희재 지음
꿈꾸는 돌 / 9천5백원



“중국의 침략을 피해 히말라야를 넘다가 동상에 걸려 발가락이 없어졌어도 아침마다 중국인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소년. '모기향을 피우기 전에 사흘 동안 모기들에게 경고하는 청년.' '길에서 만난 별레 한 마리도 전생애 자기의 어머니로 여겨 소중히 대하는 아이.'

인도로 여행을 떠났다가 그곳에 사는 티베트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매혹된 저자는 계절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다람살라, 데라둔, 따시중, 라다크 빌라쿠피, 훈수르 등 인도 대륙에 흩어져 있는 티베트 정착촌을 찾아, 평생 걸은 것보다 더 많은 길을 걸어다녔다. 그래서 증오와 분노의 독

다. 이에 소년은 “달라이 라마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티베트인과 중국인은 똑같이 소중한 존재예요. 만약 달라이 라마께서 신비한 능력을 보여 중국인들에게 해를 끼치고 티베트의 독립을 얻는다면 어떻게 그가 살아 있는 부처님일 수 있겠어요?”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놀라움과 부끄러움,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뜨거운 기운을 느꼈고 며칠 뒤 아예 집을 꾸러 티베트 어린이 마을 근처에 숙소를 정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아이들을 찾아갔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졸업생, 망명정부 관리, 학교 앞 구멍가게 주인 등 티베트 정착촌 안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비로소 '말하기'를 멈추고 '듣는' 여행을 시작한 저자는 행복까지도 적에게 양보하고 아무도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기를 기도하는 티베트인들의 영혼을 온 가슴으로 맞아들였다.

“
별레 한마리도 전생애 어머니로 소중히 모기향 피우기전 사흘간 모기에게 경고
”

을 용서와 자비의 풀로 바꿔버리고 전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났다. 이 책은 그 감동에 찬 아름다운 만년의 기록이다. 이 가운데 티베트 어린이 마을(Tibetan Children's Village)은 전세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티베트인들의 자치 구역이다. 어느날 저자는 그곳에서 두 달 동안 도보로 중국에서 인도로 탈출해 왔다는 티베트 소년을 만났다. “티베트 사람들은 달라이 라마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팔을 가진 관음보살의 화신이라 믿는데, 왜 중국의 손아귀에서 티베트를 구하지 않는 걸까?”라고 저자는 물었

그러나 이 책이 온통 티베트 사람들의 찬사로만 가득차 있는 것은 아니다. 7년 넘게 약으로 살며 허전함을 달래는 다와,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지만 품위를 갖춘 풍자장이 소년 등을 이야기 하는 대목에서 타국에서 밀바닥 인생을 살며 힘겹게 살아가는 고단한 삶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티베트 어린이 마을 운동장에 걸린 '나보다 당신이 먼저(Others before self)'라는 표어처럼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삶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티베트 사람들의 건강한 정신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보이지 않으면서 가장 소중한 것

“세상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림 보이는 것은 무엇인지요? 딱딱한 것, 만져지는 것, 물체, 그것들은 곧 사라질 것이지. 보이지 않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마음! 그것을 볼 수 있게 나를 뒤고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공부!” ('마음공부' 중에서)

향기로운 마음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나비에게 벌에게 바람에게 자기의 달콤함을 나누는 꽃처럼 소중한 것 아름다움을 베풀어주는 나눔입니다. ('향기로운 마음' 중에서)

원성 스님은 '동승'이라는 그림을 통해 깊고 먼 산속에 있는 불교를 대중들과 좀더 가깝고도 친근감 있게 소개한 승려 화가이다. 사실 그의 그림은 불교인 뿐만 아니라 개신교와 가톨릭 등 다른 종교인들도 많이 애호하고 있다. 왜냐하면 스님의 그림이 꼭 불교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꼭 필요한 공통 덕목인 '맑은 심성'을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경>과 <거울>에 이어 3년만에 발표하는 신작인 이 책은 바로 제목에서



‘마음’ 원성 스님 지음 / 화니북스 / 9천원

앞서하듯이 '마음그릇', '마음청소', '마음그리기', '사랑하는 마음', '정성된 마음' 등 '마음'이라는 일관된 주제를 담고 있다. 스님은 이 책에서 우리를 본래의 마음이란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맑은 마음'이라고 말한다.

살아가면서 맑은 하늘 아래 머구름이 지나고 바람이 불고 안개가 끼는 것뿐이지 마음의 본질은 파란 하늘처럼 맑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소 어렵거나 무겁게 느껴질지 모르는 '마음'을 주제로 한다고 해서 이 책이 심오한 진리나 깨달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는 원성 스님의 고요함이 때때로 해맑음과 청아함이 가득한 스님 특유의 천진난만한 글들이 읽는 이들의 마음을 더 단순화시키고 투명하게 해준다. 또 산 속의 풍경, 나무, 새, 달, 별 등을 지면에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수채화같은 99개의 그림들은 동심과 자연의 세계로 흠뻑 빠져 들게 만든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 '마음의 평화로움', 2장 '마음의 향기로움', 3장 '마음의 여유로움', 4장 '마음의 풍요로움' 등이다.

김주일 기자



'살아있는 한국사'
이덕일 지음
휴머니스트 / 각 1만6천원



“대륙·해양성의 우리역사 복원”

역사책을 늘 끼고 생활해야 하는 교사로서, 역사가 아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기 늘 축원하는 만큼 주변에서 만나는 역사책이나, 교과서에 대한 아쉬움을 내뿜는다.

우리에게 역사는 늘 객관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함께 존재했다. 역사를 쓰는 이들은 논란의 소지가 없는 사실을 가장 체계적으로 진술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역사를 보는 이들은 역사가에 의해 도출된 딱딱하고 재미없는 사실을 무조건 암기해야 할 그 무엇으로 여겨왔다. 역사는 살아있었지만, 역사책은 죽어 있었다.

‘살아있는’이란 수사가 붙은 새로운 한국통사 <살아있는 한국사>(이덕일 지음, 휴머니스트, 전3권)은 그래서 더욱 반갑다.

<살아있는 한국사>는 낱말의 사실을 관통하는 큰 그림을 그리게 해 준다. 역사가 과거에 대한 지식의 집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진대, 지금까지

대신에 열국 시대라 칭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2 권에서는 지방의 다양성과 중앙의 전체성이 조화를 이뤘던 고려의 새 모습을 생생히 복원함으로써,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향할 새로운 미래상을 찾아낸다. 조선 시대사를 다룬 3권에서는 기존의 역사 서술이 노론 위주 서술이었다고 논점을 제기한 뒤, 결과적으로 주권 상실로 이어지는 원인을 따져 묻는다.

살아있는 한국사는 저자의 생각이 선명하게 드러난 역사책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의견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수많은 사료와 발굴 성과를 제시함으로써 판단은 독자 자신의 몫으로 던진다. 수많은 1차 사료와 다양한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책을 읽는 또 다른 맛이다.

살아있는 한국사는 생동감 있는 이야기로서의 역사를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이덕일은 기존의 한국통사가 체제와 구조만을 가지고 서술하고 있다

새 의미의 한국통사...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의 통사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것의 현재적 의미를 묻는데 늘 기울었다. 그래서 '고대사는 살아 있는 현대사'라고 이야기하는 1권이나, '고려, 대륙과 해양에서 세계를 만나다', '조선, 한국의 전통과 오늘의 한국인을 만나다'와 같이 부제를 단 2·3권은 기존의 통사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과거의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에 끝까지 질문을 던지는 역사, 그런 역사책은 늘 기다려진다.

살아있는 한국사는 저자가 자신의 역사관을 드러내는 새로운 의미에서의 한국통사다. 그동안의 통사가 학계에서 정설로 인정된 것을 건조한 필치로 기술하는 것을 주 임무로 삼아왔다면, 이덕일은 그동안 정설로 여겨졌던 부분 가운데 상당수를 식민사학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단호히 선언한다. 그리고 "우리 역사는 만주 대륙과 일본 열도를 아우르는 대륙성과 해양성의 역사"라고 인식하면서, 고대사에서 조선 후기까지의 역사를 논쟁적으로 기술한다.

1권에서 이덕일은 학계의 정설이란 것이 실상은 식민사학의 궤도에 속해 있음을 지적하고, 삼국시대

고 주장한다. 그리고 역사관 화석화된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드라마마야 한다며 우리 역사의 흐름을 수많은 인간들의 이야기 속에서 녹여냈다.

이미지를 통해 독자의 눈길을 끌고 저자의 생각을 선명하게 기억하도록 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새로운 기술로 구현한 지도와 도표, 사진 등은 보는 책으로서의 역사서가 가능성을 확인시켜 준다.

이덕일은 <살아있는 한국사>를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한국통사를 썼다. 1980년대에 중단되었던, 그래서 1990년대 이후 이뤄졌던 역사연구 성과가 반영된 새로운 통사를 기다리던 이들의 갈증을 채워준다. 그러나 '대륙성과 해양성의 조국정신을 복원한다'는 관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정치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된 서술 행성에 대해서도 이론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보는 관점에 대한, 통사의 서술 체제에 대한 대중적, 학술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을 반갑게 맞이한다.

■김육훈 / 서울상계고 역사교사

<살아있는 한국사>는 역사학자 이덕일씨(42, 한기림역사문화연구소 소장)가 20세기 식민사관을 허물고 우리 선조의 대륙성과 해양성을 복원한 대중 역사서다.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

선물로도 최고! 성물에도 최고!

북한산 金剛念珠

북한산 金剛念珠

2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 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해골뿔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북도 주산 상명동 일리동 우백국 탐기소포로 전곡리다 받아 점안하시 하고 사형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서 중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406호

연꽃축제기념 행사기간 동안 전화 주시면 3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핫~이슈! 세계최초 24시간 대화하는 영어선생

영어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

스님, 불자님 영어회화 이제 걱정 끝!

스님, 불자님께서 영어를 배우고자 해도 지리적, 환경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영어를 배우기란 참으로 어렵다. 또한 학원에서는 직접 말해볼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외국인들은 우리 불교문화를 보고 배우려고 물려오고 있으며 국제 공용어인 영어는 사찰내 스님은 물론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필수적이다. 워드에서는 영어로 말하는 로봇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음성 인식 기술을 응용한 말하는 영어로봇의 인기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영어는 영어로 대화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빠르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사찰에서 할 수 있는 학습법이라고는 거의 듣기위주 혹은 듣고 그대로 따라하기 위주의 CD, 테이프 등 모든 것을 통한 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만다. 가장 중요한 "말하기"를 하지 못하면서 반쪽 공부에 만족해야 했는데 영어로봇 뉴지니컴의 보급으로 1:1쌍방향 대화 학습이 가능해졌다. 영어 학습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청취력" 훈련이다. 청취력을 위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영어학습 방법으로 로봇 뉴지니컴이 영어로 한마디 하면 스님께서 영어로 대답해야 하고 스님께서 음절 전면에 설치된 LCD창을 통해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향/각 지막을 자세히 보여주어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돕는다.

한번 말하는 영어가 백번 듣는 영어보다 낫다!

로봇이 사찰에서 스님과 대화하는 뉴지니컴

발음이 틀리고 화법이 틀리면 뉴지니컴은 말을 안 하든가 수정해준다. 영어에 기초가 전혀 없어도 뉴지니컴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점진 바꾸면 누구라도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귀부터 트이지 않고는 어떤 단어나 문장을 들어도 자기만의 데이터로 전환시키지 못한다. 영어로 대화하는 로봇 이름이 뉴지니컴으로 뉴지니컴은 스님께서 1:1로 재미있게 영어로 대화 할 수 있는 미국 친구와 같다. 영어로 말하는 뉴지니컴은 전면 LCD창을 통해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어 한글자막을 자세히 보여줘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도우며 언어 감각과 함께 문자 감각까지 동시에 키울 수 있다. 사찰에 하나만 있으면 모든 스님께서 재미있게 영어를 마스터 할 수 있다. 이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의 출시로 누구나 3개월이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 할 것이다. 신형한편 전국 어디든 받으실 수 있으며 카드분할도 할 수 있다.

LCD형 영어로봇 '뉴지니컴'

학습 문의 전화 (02)3210~3178,9